

은 무엇이겠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2002년도 중재신청현황

2002년도 충북 중재부에서는 총 16건의 중재 심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는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 지역의 인구·경제·사회·문화 등 일반 및 특수 의 제 지표에 있어 충북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부산, 대구 (경북)보다 많으며 대전(충남)과는 동수인 것이 그것을 말해 준다.

충북이 이 정도의 중재 건수를 유지하는 이유는 많은 언론사가 소재하고 있는 일부지역 을 제외하고는 언론기관의 수에 있어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충북지역이 언론 피해에 대한 의식과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닌 가 한다. 참고로 전국 각 지방별 중재 처리 건수의 통계를 보면 <표1>과 같다.

<표1> 각 지역별 중재 심의사건 접수 처리 건수

지역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경남	충북	대전	부산	대구	강원	제주
중재 건수	307	45	39	25	20	16	16	15	14	7	7

보다 구체적으로 2002년도에 충북 중재부에서 접수·처리한 16건의 사건 내역은 <표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2> 2002년도 충북중재부 중재심리사건 처리 내역

사건번호	신청일	청구명	신청인 주장	처리 결과
2002충북중재1	2002. 1.31	정정	지입차주 부가세 횡령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신청인 회사의 차량이 방영되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02충북중재2	2002. 4.1	정정 → 반론	신청인이 사과 수출단지 조성 과정에서 00사과 영농조합으로부터 뇌물성 상납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합의
2002충북중재3	2002. 4.3	반론	신청인이 제출한 00시장 후보 공천 신청서가 반려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02충북중재4	2002. 4.10	반론	신청인이 업무추진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를 낭비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합의

사건번호	신청일	청구명	신청인 주장	처리 결과
2002충북중재5	2002. 4.19	정정	수돗물 불소화가 인체에 해롭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취하
2002충북중재6	2002. 4.19	반론	수돗물 불소화가 인체에 해롭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7	2002. 4.25	정정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충치 예방 효과가 없으며, 인체에 해롭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취하
2002충북중재8	2002. 6.3.	정정	신청인이 과속 단속에 적발된 일이 없는데도 과속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9	2002. 7.5	반론	00군수 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이 모 방송국주최 '후보자 토론회'출연이 제외되자 선관위 직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10	2002. 7.23	반론	신청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11	2002. 7.23	반론	신청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12	2002. 7.23	반론	신청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반론보도	취하
2002충북중재13	2002. 7. 23	반론	신청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반론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14	2002. 11.21	정정	신청인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뀐 사건과 관련, 상주가 병원장을 폭행한 사건이 정당한 행위였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02충북중재15	2002. 12.18	반론	모 대학교 총장과 그 측근들이 독선적이고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물의를 빚어 왔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16	2002. 12.30	정정	신청인 조합에 공금 횡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